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이용자의 인식조사

임미정\* · 이은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예학과 · \*\*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과학부

## I. 서론

전체인구 중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10년 90.8%까지 증가하였고, 우리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생태계 파괴, 녹지공간의 부족을 포함한 도시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http://www.mltm.go.kr).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높은 인구밀도를 갖게 되면서 도시는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양적 확대를 이뤘지만,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도시 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거형태의 변화는 인간과 외부공간, 녹지와의 관계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마을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 공간 부재로 인한 이웃과의 단절, 삭막한 외부환경을 통해 도심에서의 녹지부족으로 인한 자연과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증가, 환경에 대한 무관심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내 녹지율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시농업을 시도하고 있다(김수봉 등, 2002).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가족농원, 시민농원, 텃밭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도시의 텃밭이 도시민에게 도시생활의 매력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강기남 등, 2007). 이처럼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도시농업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연구는 대부분 텃밭 이용 실태 및 요구도 분석에 관한 것으로 도시농업과 지역의 커뮤니티와의 관계, 그에 따른 거주민의 공동체 의식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도시텃밭 이용자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와 제언을 통해 도시텃밭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II. 연구 범위 및 방법

### 1. 대상지 선정

본 연구는 그 동안 여가선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용되어 온 텃밭에 대해 도시 내에서의 활용을 통해 기존의 목적뿐 아니라 녹지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직면한 도시에 녹지 확충의 기회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팀을 통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내의 도시텃밭 중, 2010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작물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가 없는 곳, 공사 중인 곳, 그리고 농원이 사정으로 설문 불가능한 곳 등을 제외하여 도봉구 무수골을 포함한 총 12곳을 설문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표 1참조).

### 2. 설문조사 및 분석

텃밭의 규모 및 1구좌 당 면적, 수용인원, 그리고 편의시설과 보유 기구 및 기계 등의 설치 유무에 관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텃밭 이용자들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필요성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조성된 텃밭 중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1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총 221부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설문조사를 2010년 9월 실시한 후 2010년 10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훈련 받은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피설문자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 후 직접 설문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평일과 주말 이용

표 1. 현황 및 이용자 인식도 설문조사 대상지

자치구	도시텃밭명	자치구	도시텃밭명
도봉구	무수골	서초구	들꽃풍경
	영이네		서초주말
중랑구	용마산주말		염곡주말
양천구	신정자연	강동구	상일주말
강남구	산골주말		호경주말
종로구	홍씨주말		초군주말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 및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텃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텃밭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오전 9시~오후 7시 사이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총 4개의 항목으로 크게 도시텃밭 이용현황, 도시텃밭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지역공동체(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필요성, 응답자에 대한 일반사항으로 나누어졌으며, 전체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는 spss 18.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그리고 일원분산분석인 ANOVA분석 등을 실시하여 유의성 검토를 통해 각 항목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응답자에 대한 일반사항

일반적 설문 대상자의 성별 빈도는 남자 48.4%(107명), 여자 51.6%(114명)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의 연령 분포는 1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40대가 36.7%(81명), 50대가 30.3%(67명)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각 도시텃밭 별로 이용자의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구에 위치한 무수골과 영이네의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도봉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에 위치한 들꽃풍경, 서초주말, 염곡주말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동구의 상일주말, 호경주말, 초근주말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중랑구에 위치한 용마산주말의 경우 설문 응답자 전체가 중랑구에 거주하고, 양천구의 신정자연 또한 대부분 양천구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남구의 산골주말의 경우 대부분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텃밭 별 이용자의 거주지 현황을 교차분석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 1263.358로 유의확률 0.000으로 나온 것을 통해 두 항목 사이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도시텃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도시텃밭 이용 현황

텃밭이용 기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에 서부터 4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비슷한 빈도로 나타난 것이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로는 처음 이용한다는 답변이 37.1%(82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2년째 이용 중에 있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텃밭 방문 시 활용하는 교통수단과 소요시간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57.0%(12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도보가 27.6%(61명)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방문 시 소요시간에 대한 설문의 결과로는 10분 이내로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 47.5%(105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1~20분으로 답한 응답자가 35.7%(79명)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20분 내외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요일에 대한 답변으로는 주말이 66.1%(146명)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평일이 25.3%(56명)를 차지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등의 답변이 8.6%(19명)를 차지하였다.

방문횟수에 관한 설문 결과, 1주에 1번 정도가 38.5%(85명), 1주에 2~3번 정도가 38.0%(84명)로 나타나 두 가지의 답변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시 머무는 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로는 1~2시간이 49.8%(1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두 항목을 교차분석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 36.892, 유의확률은 0.002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문횟수가 높음에 따라 체류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 3. 도시텃밭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가 이용하고 있는 텃밭 내에 휴게 공간, 화장실, 급수 시설, 도구함, 주차장 등의 시설이 위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후 그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대부분의 도시텃밭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텃밭을 일구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급수시설이나 도구함, 화장실, 휴게 공간 등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곳도 확인되었다. 또한 각 시설별 만족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개 항목을 각 5점에서 1점으로 하여 평균을 나타낸 결과급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4837로 가장 높았으며,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가 3.1111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각각의 시설별로 보통에서 만족 사이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현재 시설에서 보완이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개인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도구함, 화장실, 주차장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바비큐시설, 식당, 매점, 농작물에 대한 정보 게시판, 탁아소 등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텃밭을 이용하기가 조금 더 편리해졌으면 하는 답변들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텃밭 내에서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와 그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텃밭 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답하였으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텃밭조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이 총 221명의 응답자 중 95명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용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프로그램(69명), 수확물을 나눌 수 있는 사회사업 프로그램(65명),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5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 별 만족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개 항목을 각 5점에서 1점으로 하여 평균을 나타낸 텃밭 조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3.4211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2.9385로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만족도는 보통 정도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진행되는 것이 없을 경우 신설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재배요령이나 재배 기술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이용자들 간에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답하였고, 현재 텃밭단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텃밭 이용자들의 요구도 중 텃밭을 통해 더 많은 커뮤니티 조성과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필요성

텃밭 이용자들에게 평소 지역 내에서 이웃과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고 58.8%(130명)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21.7%(48명), 보통이 18.1%(40명)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 설문을 통해 이용자의 80% 정도가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답변으로는 집주변이 40.3%(89명)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지 내 휴게공간이 27.1%(60명), 소공원 등의 녹지공간이 25.3%(5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종교나 취미생활공간 등이 있었으며, 이 설문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 이웃 소통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이 인근의 휴게 공간 및 녹지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텃밭 내에서 이용들과의 교류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7%(90명)가 잘 이루어진다고 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보통이 19.9%(44명), 매우 잘 이루어진다가 19.0%(42명)를 차지하였으며, 이용들과 공통된 주제로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응답자의 39.8%(88명)가 잘 이루어진다고 답하였으며, 보통이 28.1%(62명), 매우 잘 이루어진다가 13.6%(30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문항들의 결과를 통하여 텃밭이라는 공간이 공동의 대화를 통해 교류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들의 방문횟수에 따른 교류정도 및 공동대화정도를

ANOVA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을 때, 이용자들의 방문횟수는 매일, 1주에 2~3번, 1주에 1번, 2주에 1번, 한 달에 1번의 5개 항목으로 하였으며, 교류정도 및 공동대화정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하여 매우 안 이루어짐, 안 이루어짐, 보통,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의 5개 항목을 각 5점에서 1점으로 하여 두 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은 두 항목 모두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이용자들의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교류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공동대화정도 또한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의 교류정도에 대한 Duncan 사후검정을 통해 2주에 1번 정도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1주에 2~3번 이용하는 집단이 교류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동대화정도에 대한 Duncan 사후검정을 통해 2주에 1번 정도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매일 이용하는 집단이 공동대화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들의 텃밭 체류시간에 따른 교류정도 및 공동대화정도를 ANOVA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을 때,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은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의 5개 항목으로 하였으며, 교류정도 및 공동대화정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하여 매우 안 이루어짐, 안 이루어짐, 보통,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의 5개 항목을 각 5점에서 1점으로 하여 두 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은 두 항목 모두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이용자들의 텃밭 체류시간이 높을수록 교류정도 및 공동대화정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들의 교류정도에 대한 Duncan 사후검정을 통해 체류시간이 길수록 교류정도가 좀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공동대화정도에 대한 Duncan 사후검정을 통해서 1시간 미만 체류하는 집단에 비해 4시간 이상 체류하는 집단이 공동대화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동대화정도와 지역 내 이웃과의 커뮤니티 형성의 필요성 두 항목을 교차분석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 45.570, 유의확률은 0.000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동대화정도에 따른 커뮤니티 형성의 필요성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므로, 공동대화정도가 높을수록 이웃과의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주거지 인근의 공원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으로 29.4%(65명)가 1주에 2~3번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와 비슷한 수치로 1주에 1번 정도가 29.0%(64명)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주에 1~3번 정도 공원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부산시 APEC 나루공원 내에 조성된 텃밭과 서울시에서 계획한 불암산과 관악산 자락에 위치할 공원 내 텃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주거 지역 내 공원에 텃밭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응답자의 89.6%(198명)가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였다.

좋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이 34%(67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이웃과 소통의 기회를 택한 응답자가 27%(53명)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좋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0.4%(23명)으로 그 중 7명이 지지분하고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휴게공간이나 체육시설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각각 6명씩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원 내 수목제거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이는 공원 내 텃밭 조성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텃밭에 대한 관리 부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공원 내 텃밭 조성이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 설문 문항은 주거지역 내 공원에 텃밭이 조성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것으로 응답자의 45.7%(101명)가 텃밭 조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꼽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수확물을 함께 나누며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38.5%(85명)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각 사회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곳과의 연결이나 공원이 아닌 텃밭 기능을 강화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현재 국내의 많은 텃밭이 텃밭조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 또한 텃밭 조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물을 나눌 수 있는 축제나 지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더욱 활성화 된다면 텃밭이 단순히 작물재배를 위한 장소 제공의 역할만이 아닌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 도시텃밭 이용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되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도시텃밭 이용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도시 내에서 텃밭이라는 공간이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도시텃밭 내 편의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에 대한 요구도가 크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텃밭만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 조성 시 휴게공간 및 교류공간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정원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텃밭을 활용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수확물을 지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텃밭을 통해 생물의 서식처 마련이나 녹색의 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적 역할 또한 감당해 낼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도시텃밭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커뮤니티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의 신규조성장소의 확대와 조성 방법 및 구획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함께 텃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텃밭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인용문헌

1. 강기남, 이종근, 김기황, 이만형(2007)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26(1): 167-176.
2. 김수봉, 조진희, 정응호(2002) 환경친화적 도시와 도시농업. 환경과학논집 7(1): 71-91.
3. <http://www.mltm.go.kr>